

국난극복 의지 디지털 대장경에 담자

팔만대장경 전산화 후원 전국 확산

작년 3만8천명 참여...12억원 모금 1백억원 목표...2000년까지 접수

‘국난극복과 미래 자손을 위한 회향, 21세기 디지털 팔만대장경을 만드시다’ 캠페인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에 후원인으로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1가족 1명만 후원은 10만원 이상, 1가족 1명전 후원은 1백만원 이상입니다. 단체 및 기업단위의 후원과 함께 산방부모의 이름(영가)으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 접수기간은 2000년까지입니다. 이때까지 1백억원의 후원금이 모여야 팔만대장경의 전산화 사업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캠페인에는 3만8천 25명이 참여, 11억7천여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경전에 올릴 가족의 명단(기업 및 단체의 명단)과 함께 후원금액을 알려주면 입금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사할의 법회시 현장에서 도 후원 약정 및 접수를 받습니다. 후원전화 문의전화 02-3785-0632, 팩스 02-793-0581, 통신 하이텔(go k80000) 유니텔(go k80000), 인터넷 http://www.members.iworld.net/~hederein

후원 동참해주신 가족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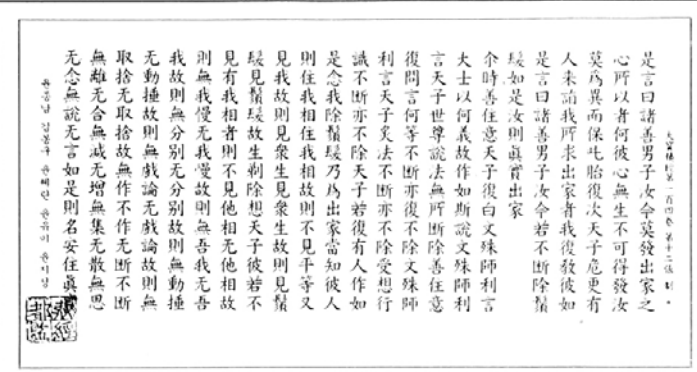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양효원 엄희옥 양성욱(강남구) ▶변영환 문영아 변재상 변성원(강남구) ▶황재용 원재성 황진우 황성우(강남구) ▶최영대 이경호 김미옥(강남구) ▶신혜선 정재훈 정수현(강동구) ▶이숙봉 신기원 이승훈 이승주(강동구) ▶류태선 임순득 류제철 류현수(강동구) ▶허준근 임기장 허준근 전순심 허영식(강북구) ▶최정순 이형규 노양순 이창순 이태훈(강서구) ▶박제을 민경숙 박창환 박동환(강서구) ▶남호동 김상민 남우원 남필원(관악구) ▶김정희(관악구) ▶정진왕 정장모 신정옥 정선경 정원우(관진구) ▶박영선(관진구) ▶우승백 신혜원 우민정 우신욱 우승원(관진구) ▶심동섭 송승숙 장매너 심남섭 심효주 심현지 심정숙 심민선 심분섭(구로구) ▶배복선 서승순 서용석(금천구) ▶이봉래 김영필 김복득 이규원 이봉래 이희지 이영주(노원구) ▶박종희 서영혜 박우홍 박우중(노원구) ▶주준권 이태우 김민수 조형선 고은정(동대문구) ▶송인호 이광자 송영식 송현주 송영주 송영화 민경일(동작구) ▶이창기 성영희 이정은 이종관(마포구) ▶이복재 최인덕 이민정 이승민(서대문구) ▶이순래 김지호 김광수 김진수 하인혜 김일도 김다미(서초구) ▶박동운 심연숙 박선형(서초구) ▶김운정 김운주(서초구) ▶이정원 이연애 박영희 이우행 이미순 이미경(서초구) ▶박진

현 박찬서 이지선 박경림(성북구) ▶김철진 김명숙 김경미 김향아(성북구) ▶구경욱(송파구) ▶박귀곤 조우재 조혜경 조홍래 조홍식(송파구) ▶박종권 최병순 박용우 박우연 박은정 김병학(양천구) ▶이상권 이미영 이재희 이정희(양천구) ▶하정수 이애숙 하상훈 하태원(양천구) ▶오명숙 정기향 정지연 정경민(양천구) ▶유영신 열매익 열충곤(양산구) ▶박금용 박병일 박병영 박병목 박상진(양산구) ▶최영복 엄필래(양산구) ▶윤옥자 김혁동 김국환 김중환 김상환 김기태 김경자 김미리(은평구) ▶이순자(은평구) ▶김무애강 서거호 이명순 서정현 서명준(종로구) ▶고병관 삼백의 고혜진 고세연(종로구) ▶조광옥(종로구) ▶장보은화(종로구) ▶박노갑 최희경 홍안나 홍소연 박미나(종로구) ▶김영연 박순화 김영달 오명숙 김유정 김광호(종로구) ▶한동휘 홍화선 한수민 한성민(종로구)

부산광역시

▶서민자 안상룡 안효정(금정구) ▶정순철(금정구) ▶김옥이 장진규 장갑수(금정구) ▶민경희 엄윤태 엄해주 엄현진(금정구) ▶이순덕 김만식 김조아 김조은 임미숙(금정구) ▶강원수(금정구) ▶김경수 김현주 김관석(금정구) ▶조수연(남구) ▶신영숙 김남일 김상일 김동하(남구) ▶최준순 박삼갑 최준순 박민성 박소영 박수현(남구) ▶이우영 배영숙 이병기 이진



후원인에 이름새긴 각명지 우송 천년이상 보존 특수지...CD롬 발원문 수록

팔만대장경의 디지털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스님)는 후원인들에게 각 가족의 이름이 새겨진 경판을 사옹지 크기로 뽑은 '각명지(刻名紙·사지)'를 대장경연구소의 소식지와 함께 보내고 있다. 각명지는 한솔제지에서 특수제작해 후원한 것으로, 1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보랏빛 색깔의 닥지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또 '남북통일을 위하여'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등 후원인들의 사연을 팔만대장경 CD롬 타이틀 초기화면에 띄울 계획이다. 후원과 함께 디지털 경전에 담고자 하는 다양한 발원은 고려대장경연구소 담당자(김종훈 02-797-0585)에게 연락하면 된다.

숙 이태경(동구) ▶송미영 한창찬 한일 한준훈 한민(동구) ▶김상필 임기무 임종철 임경숙 임영옥(동래구) ▶곽해성 오영자 곽문정 곽문경 곽승환(동래구) ▶강영희 이정용 이은숙 이은하 이선미 이기남 이영진(동래구) ▶김정영 김윤덕 이준정 임여상 임용수 임용훈(동래구) ▶윤정도(동래구) ▶김수길 박옥순 김동섭 김한삼(동래구) ▶조용주 안순남 이위남 조혜진 조익재 조종규영(동래구) ▶김인식 전양수 김수현(동래구) ▶백상훈(동래구) ▶손혜영 손반아성(동래구) ▶백우영(동래구) ▶우경원(동래구) ▶오순호 윤주미 오상운 오민경(동래구) ▶김성식 윤주리 김석진 김자경(동래구) ▶이승철 박봉자 이현동 이인호(동래구) ▶변현순 변종식 김기초 변성환 변영미(동래구) ▶정미경 정희도영가 정동석영가 정순철영가 허차진영가 이경아영가(부산진구) ▶이인철 이병국 양순자 이인수(부산진구) ▶최유리(부산진구) ▶박행복 박수관 김성자 박현민 박지원(부산진구) ▶염명조 이명순 염경원(부산진구) ▶김상을 윤갑숙 김은정 김명환(사상구) ▶문경희 이부준 윤말순 이길식 이혜원 이경민 문재현 박순덕

(사상구) ▶김광록 안남규 안정환 안계영 최진태 김상호(사하구) ▶김보미 김보영 이시범 이연우(사하구) ▶허유순 김진녀 허다영 허성현(사하구) ▶김대경 정순복 강희동 김수현(사하구) ▶현호진 허숙영(사하구) ▶유인곤 이차자 이숙영 박봉급 이수조 이수연(사하구) ▶김준득 정순희 신혜영 김태영 김훈택 김정에 김춘자(사하구) ▶이상철 안경숙 이주연 이창희(사하구) ▶김종식 정준해 김두원 김두원(사하구) ▶성배경 한미정 성재원 성재호(사하구) ▶김길중 송정자 김혁(사하구) ▶박영호 송문자 박철 박정민 박이태 이용인 박순애 윤성진 이규성 윤시연(사하구) ▶임화택 문복덕 임대원 임대영 임대현(서구) ▶유영순 손규용 손희진 손남희 허성용(서구) ▶정주연 정달문 백삼점 정주연 김인숙 정영운 정영남 정숙경 정숙향(서구) ▶성상호 김준자 박민선 성창연(수영구) ▶박남근 김명식 박명선 박명진(연제구) ▶김영숙 박무근 박용운 박희정 박은경(연제구) ▶김진욱 정규훈 김소득 정경원 정순호 정영현 정광현(영도구) ▶용의화 김대현 김대용(영도구) ▶김귀향

(중구) ▶이정숙 홍경우 홍은조 홍은희 홍봉진(중구) ▶김종용 도영선 김형민(해운대구) ▶권해숙 김복출 이연선 이승원 이대건 천필욱(해운대구) ▶김귀순 이정복 이정훈(해운대구) ▶박상훈 박형식 김정희 강경희 박대영 박지영 박동훈(해운대구)

▶서명환 장경옥 서경진(고양시) ▶이명복 이현용 이승원 이경원 이두원 이은영 윤민재 박미숙 문경희(과천시) ▶장미현(부천시) ▶양정숙(부천시) ▶이영애 박용규 이영애 박종수 박미영 김애란 박성배 박원지(부천시) ▶장재철 김광주 박우영 장영경(성남시) ▶조만수 김창배 김종인 김보미 김대천 최경영 최현석(성남시) ▶백승환 김남희 백동인 백지영(성남시) ▶박명숙 채건희 박명숙 채지은(성남시) ▶한양순 이종학 이태훈 이나경(성남시) ▶박상욱 정성택 정윤용 정외분 정수정(성남시) ▶한숙도 한광동 박영란 한태호 한여진 한숙진 한명옥 한진원 한주연(성남시) ▶리제제 박숙자 정인숙 리정일 백은숙 리정찬 김미영 리선규 리인규(수원시) ▶정태인 이규주 정태인 이동현 이호운(수원시) ▶박명옥 한수택 박명옥 한주수 한혜진 한현수(수원시) ▶노윤근 정현경 노진서(수원시) ▶박경태 강동성 강한성(수원시) ▶권혜련 김학만 김진기 김명기(수원시) ▶조정옥 김재성 김지나 김현우 임해빈(안산시) ▶황순원 백해필 황한우(안산시) ▶김성규 김수민(안양시) ▶서인희 유병현 유호곤(안양시) ▶한공석 조경이 한경미(안양시) ▶조준근 박봉희 조관호 최은경 조이현 조미경(용인군) ▶김일수 이상진 김승해 김민정(의왕시) ▶정영복 이은옥 정원석(의왕시) ▶김한영 조희경 김연택(의정부시) ▶정병문 최태순 정지수 정광섭(평택시) ▶강인선 신영희 강상표 강정표(포천군)

경기도

▶정숙도 박은나 김범수(남구) ▶예병환 신영순 예진희 예연희(남구) ▶박종식 김연순 박세열 강성희 박희정 박효정 박세진 서현주 박만성 박인희 박은정(남구) ▶김영순 김용달 김명순 김동희 김동성 이은경(남구) ▶김영규 장선녀 김태욱 이은주 김진경 김기훈 이덕규 김미라 이유원 이지원 구분준 김경원 구범모 구해민(동구) ▶유재운 최경덕 용성순 장택배 용정훈 용정희 용성열(동구) ▶배용덕 이순자 배수진 배지은(동구) ▶이중규 손주조 이종우 이순란 이상훈(북구) ▶김상기 광생본 김민경 김원재 김민지(서구) ▶박이부 김순아 박성용 박현주(서구) ▶이종익 이순하 이현수 이현림(수성구) ▶이진수(중구) ▶신상분 박재우 김영애 박소연 박지연 박수재(중구) ▶홍광식 홍승규 최재이 안영숙 홍희철 홍희경(중구)

경기도

▶정영환 정진옥 이화선(김해시) ▶진영애 강근구 강은진 강지현(마산시) ▶강세의 변순옥 강인희 강민영(마산시) ▶김용득 김영숙 김남철 김민재(마산시) ▶권재우 이위조(산청군) ▶하영안(양산시) ▶은종균(양산시) ▶김선미 한태원 심상출 한태실 한영식 한영수(울산시) ▶권선옥 김준섭 김국대 김규성(울산시) ▶김민식 최귀남 김두현 김두경(울산시) ▶김현용(울산시) ▶김연주(울산시) ▶정용수 박귀숙 임종원 박영규 장병순(창원시)

경상남도

▶오은숙 김성용 오은숙 김해란(제주시) ▶고인아 이연교영가 이창식영가(제주시) ▶현춘심 현원경 김영자 현영근 현진신 현승철(제주시) ▶고영종 이영자 오봉기 고관표 고경현(제주시) ▶채창량 허갑생 양영춘 채두원 채성민 김애숙 채인원 채성미 채영우(제주시) ※나머지 명단은 추후 게재합니다.

제주도

고려대장경연구소 (02)3785-0632-5
PC통신 유니텔·하이텔 팔만대장경 포럼(Go K80000)

도올 '벽암록 강의'를 듣고

불교의 선은 이른바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하거나 다루기가 무척 어렵다. 사상의 오묘함과 난해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도올 선생이 간화선 최고의 오의서(奧義書)인 《벽암록(碧峯錄)》을 강의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동서양의 화에 박학하다는 선생이 불교의 선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벽암록》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가 궁금했다. 한편으로는 선생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세계를 통해 편오적 시각으로 설명하게

시에 선생의 품격도 돋보이게 했다. 특히 문구 해석에서 낮은 품격의 용어를 내용에 맞게 섞어가며 풀이하는 것이 일삼구어체인 선어(禪語)의 형태를 잘 파악, 그 특색을 되살린 것으로 당시의 현장감이 느껴질 만큼 아주 적격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구 해석이나 논리적 분석을 조금 줄이고 거기에 담겨진 본질적 의미에

선사상 핵심 잘 짚어 실수행도 언급했으면...

나 단순히 자구적(字句的) 해석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기우였다. 선생은 불교와 선에 깊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선생의 박학다식한 면모와 어우러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선사상의 대화형 선적인 경지가 없다면 설명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자연스레 언급됐고, 선사상의 핵심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가닥을 잡아주는 것도 두드러져 보였다. 또 조사들의 선세계와 삶에 대한 평점은 흡사 전법자가 아닌 가하는 필자와 함께 처의(處衣)의 작자에게 숙연한까지 느끼게 했으며, 겸손한 학자적 태도는 선사상의 깊이를 부각시킴과 동

대한 설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것과 실제 수행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는다는 점이다. 선의 지식적 이해를 갈망하는 청중들에게 배려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구나 논리에 치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의 본자에 벗어날 수 있다. 이론적 이해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사선(死禪)에 불과할 뿐이다. 본인이 직접 실수(實修)하는 것이 선의 가장 중요한 요체이다. 12회(월1회) 중 3회까지 들었기에 강의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선실수에 대한 강조를 듣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웠다. **홍호(동국대 김사·불학연구소 연구원)**

독자 마당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 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고.

불자 종교편향정책 불만 새정부 해소 기대

지난 시절 특히 김영삼 정권하에서 수 없이 자행되어온 종교편향책과 군부내의 종교편향 파문,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부끄러운 사건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해인사 골포장 건설 등의 사찰환경 파괴 문제를 비롯 불교계와 정부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물론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이 대통령 개인의 노력에만 달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의 종교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정권과 종교계의 분쟁은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실마리를 찾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김대중 대통령만큼은 종교

사미(나) 호칭·의제개혁에 관하여

제언
승가의 위계(位階) 확립을 목적으로 사미(沙彌)의 호칭문제의 의복에 가사복 따를 돌려 구분코 한다는 조계종단의 결정에 일 본에서 오부 율장을 연구하는 학인으로 서 의견을 낸다. 비구와 사미, 비구니와 사미니를 승계(僧階)로서 구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면서 늦게나마 시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승가의 위계나 위도가 문제가 되어 사미 사미니의 호칭과

시주강요에 불심 발달려 탁발정신 전통 되살려야

서울의 한 유명사찰에 다니시는 부모님 말씀이 짚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각종 불사를 내세워 매주 돈을 내라는 통에 가기 싫다고 하신다. 실제로 요즘엔 가시 없는데도. 절이라 하면 처음 찾는 곳이라 하여도 '공양 하겠습니까?'고 물어봐 주는 따듯함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다시금 '탁발'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한 불심으로 중생들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이홍호(23·서초구 잠원동)**

울장 규정 없어...승풍확립 우선

없다. 다만 본인이 베트남불교 교단과 법제사 연구를 위해 수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베트남불교만이 오부대중(五部大眾)의 의복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그 이유는 지면상의 이유로 생략한다). 승풍의 진작과 승가의 위계확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율장에도 없는 사미 사미니의 의복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승가의 위와 가풍이 불분명하고 해이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규명하고,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또한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인 지(持)생활에 입각해서 철저한 수행자로 정진할 수 있는 승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가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관(야이치기쿠리대학원 박사과정)**

보살 52계위 비판에 대한 반론

본지 162호(2월26일자) '열린마당-52계위 포살참회법'에 대한 지관스님(일본 에이지대 박사과정)과 신성현연구원(동국대 불교문화원)의 비판과 관련해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법성스님이 반론문을 보내왔다.

"재가자도 실천가능한 포살"

▲"대승보살 52계위는 보살지위에 들어간 자만이 가능한 실천행이자 서원(지관스님)"일까? 일타스님이 해석한 《법방경》에 의하면, 보살이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낮은 데서 점차 높은 데로 올라가고, 좁은 법에서 넓은 법으로 나아가 마침내 불위(佛位)인 극과위(極果位)에 도달한다고 했다. 보살위에 들어가기 위한 점진적 수행 과정이 대승보살 42계위 혹은 52계위이다. 《화엄경》 《법승보살의 수행은 반드시 발보리심을 근본으로 하고, 이 보리심을 꾀(計)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포살의식은 바라제목차(계본)만을 외워야 하며, 대승보살 52계위는 포살에서 필요한 바라제목차가 아니다(지관스님)"는 견해에 대해,

▲"난 해하고 모호...재가 실천 불가(신성현씨)" 라는 견해에 대해, 포살은 보살계를 받은 불자로 하여금 잘못을 참회하고 보살의 현성법을 지녀 점진적으로 범부위에서 현성위로, 나아가 佛位에 오르게 하는 신행의 통이다. 따라서 계를 살하는 것은 수단일 뿐이다. "재가 실천 불가"라는 단언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재가불자는 근본적으로 대승보살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52계위 포살참회법의 행법차례는 《법방경》을 비롯 대승 경·율·론을 근거로 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포살의 전통을 잇고, 이미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가포살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재가 포살법을 연구한 것이다. 실제 포살을 실시하는 현장의 경험이 보완되어야 이 시대의 바람직한 재가 포살의 진영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본다. **법성(조계종 포교연구실 사무국장)**